뉴욕은 지금, 2019 휘트니 비엔날레의 현장

글. 정유선 뉴미디어 아티스트/서울여대 초빙강의 교수

뉴욕 거리 곳곳에서 발견되는 휘트니 비엔날레 배너

뉴욕은 세계 미술계의 중심지이며 모든 예술인이 꿈꾸는 무대이다. 과거보다 그 명성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런던과 합쳐 현대 미술의 4분의 3이 움직이는 현대 미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다. 뉴욕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미술 작품들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이슈가 되는 작품을 동시에 찾는 것이 가능한 거대한 백과사전과 같은 도시다. 뉴욕 시에는 모마(The Museum of Modern Art), 구겐하임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휘트니 미술관, 뉴 뮤지엄(New Museum), Ps1(P.S.1 Contemporary Art Center) 등 75개의 아트 뮤지엄이 있고, 소호, 첼시, 로어 이스트 사이드, 어퍼 이스트 사이드 등 뉴욕 맨해튼 전역에 퍼져 있는 아트 갤러리만 약 1,500개 정도로 추정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갤러리가 밀집해있는 도시이다.

우리나라에도 아라리오, 두산 아트센터, 티나 킴 갤러리 등 한국의 대표 갤러리들이 뉴욕에 거점을 두며 한국 작가와 아시아 미술을 소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에 뉴욕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두 번에 걸쳐 뉴욕 현대 미술의 현장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번 회에는 현대 미술의 최전선에 있는 휘트니 비엔날레 현장을 소개하고 이어서 세계 현대 미술 시장을 형성하고 예술의 유행을 주도하는 뉴욕의 상업 갤러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대 미술의 최전선, 휘트니 비엔날레

현재 뉴욕 현대 미술관(MoMA)은 10월 21일까지 리뉴얼 공사 중이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캠프: 패션에 대한 단상'(Camp: Notes on Fashion)이라는 패션에 관련된 전시를 진행 중이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예술적 자유: 구겐하임 컬렉션의 6가지 장면'(Artistic License: Six Takes on the Guggenheim Collection)이라는 전시로 6명의 아티스트가 기존의 구겐하임 컬렉션을 예술가의 시각으로 전시 기획하여 재조명해보는 전시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현재 뉴욕의 미술관들은 다른 큰 이슈가 없는 전시로 79회 휘트니 비엔날레(2019년 5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휘트니 비엔날레는 세계적인 현대미술 전시회 가운데 하나로, 베니스 비엔날레(Biennale di Venezia), 상파울루 비엔날레(Bienal de São Paulo)와 함께 세계 3대 비엔날레로 손꼽힌다. 보통 짝수 해 상반기(보통 3~5월)에 약 3개월 동안 2년마다 뉴욕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에서 열린다. 하지만 2014년 77회 비엔날레 이후, 전시관이 2015년 5월 첼시 지역에 건축계 거장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새 건물로 이전한 이후 2016년 비엔날레가 2017년으로 연기되면서 현재는 홀수 해에 휘트니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다. 이번 2019년에 열린 휘트니 비엔날레는 79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2015년 하이 라인과 허드슨 강 사이에 새로 지어진 휘트니 미술관 빌딩, / 사진 출처 : 휘트니 미술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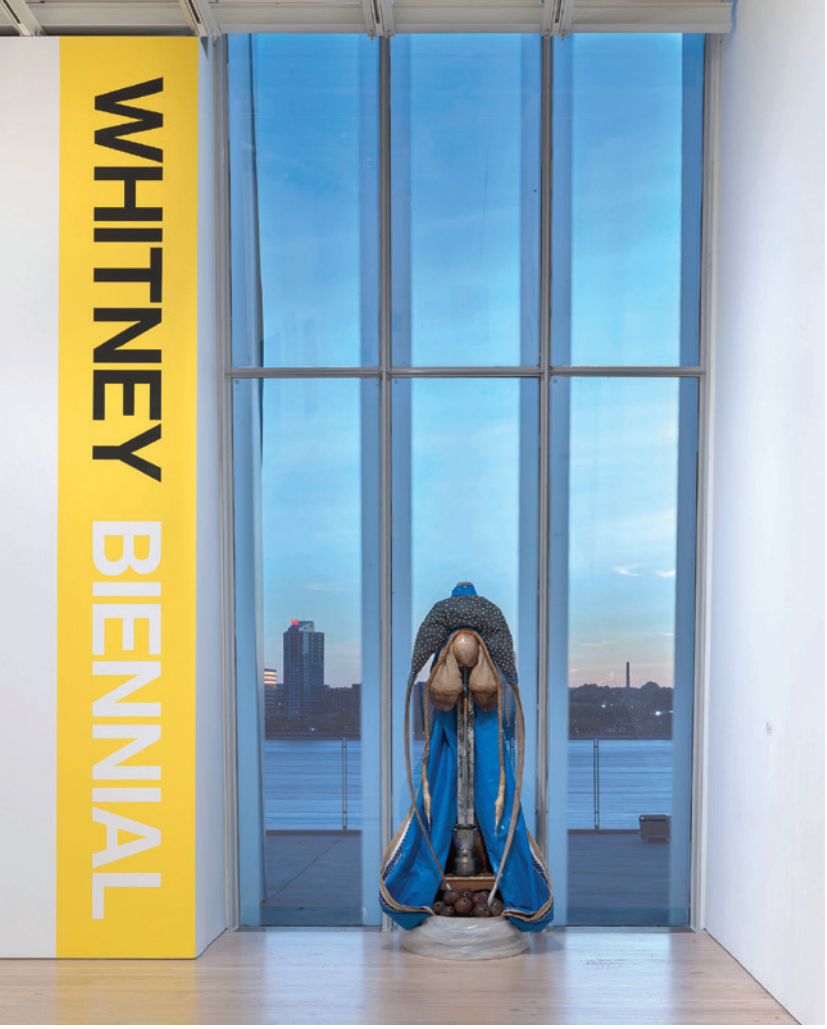
휘트니 비엔날레는 미국의 동시대(Contemporary) 미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오늘날 세계 미술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경향을 이끄는 전시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명성을 얻은 유명 작가 중심의 전시보다는 파격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신진 작가들의 작품들을 선보여왔는데, 개최될 때마다 전시 작품들로 화제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로 유명하다.

사실 1993년에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처음으로 휘트니 비엔날레 전시가 열린 적이 있었다. 한 번도 미국 밖으로 나간 적이 없던 휘트니 비엔날레의 한국 유치는 당시 미술계에서 상당한 화제였고 그 뒤엔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던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의 노력이 있었다. 진보적인 성향의 휘트니 비엔날레는 그 당시 보수적인 한국 미술계에 상당한 파문을 던진 전시였으며 대중은 물론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한국 현대미술이 도약하는 계기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79회 휘트니 비엔날레
- 2019년 5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2019년 휘트니 비엔날레는 MoMA에서 자리를 옮긴 제인 파네타(Jane Panetta)와 브루클린 뮤지엄에서 흑인 작가 전문 큐레이터로 경력을 쌓은 후 휘트니 미술관으로 이직한 루제코 호클리(Rujeko Hockley), 이 두 여성 큐레이터가 25개 도시에서 300여 개의 스튜디오를 방문한 후 75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흑인의 삶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향한 폭력과 제도적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구호로 현재 휘트니 비엔날레의 이슈를 한마디로 정의해주는 시대 정신(Zeitgeist)이라 할 수 있다. 시몬리(Simon Leigh), 웨인지키 무투(Wangechi Mutu), 스테파니 자미슨(Steffani Jemison) 등 비엔날레 참가자들의 40%가 아프리카 미국인일 정도로 현재 흑인 작가들의 파워는 대단하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의 보수적이고 강경한 이민정책 안에서 이민 여성 작가들의 정체성 탐구와 새로운 예술 언어의 발굴도 주목할 만하다. 그 외에 아메리칸



휘트니 비엔날레 전시 전경 / 사진 출처 : 휘트니 미술관 홈페이지

인디언 계의 작가 세 명과 한국계 작가 4명도 참여하는 등 미국 내의 흑인, 소수인종과 여성 등 미술계에서 비주류로 인식되던 소수계의 예술가가 다수가 되는 현상이 지금 휘트니 비엔날레에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자메이카 출신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시카고 출신 흑인 여성 작가 시몬 리(Simon Leigh)는 올해 최고의 스타로 발돋움했다. 현재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는 2018 휴고 보스 수상 작가 개인전 '도피의 허점(Loophole of Retreat)'을 2019년 4월 19 ~ 10월 27일까지 열고 있으며 하이 라인 파크(The High Line)에서는 그녀의 대형 조각이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전시되고 있다.

#Black Lives Matter, 흑인작가들의 전성시대

51세에 휘트니 비엔날레에 초대된 그녀는 스미소니언 국립 아프리카 박물관에 인턴으로 일할 때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잘못된 유물의 분류 및 전시 방법 등을 깨닫고 이러한 오류들을 가지고 작업하기 시작했다. 사회에서 받은 흑인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 도자기의 방식과 아프리카 도자기의 방식을 재구성하여 흑인 여성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청동 조각과 도자 조각으로 표현하였다. 그녀는 얼햄 대학교(Earlham College)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며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RISD) 도예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웨인지키 무투(Wangechi Mutu)는 여성의 신체를 주제로 인간, 동물, 식물, 기계성을 가진 복합적 여성을 표현한다. 아프리카의 전통, 국제정치, 패션계, 포르노,

휘트니 비엔날레에 전시된 시몬 리의 작품 <스틱 Stick>

구겐하임 미술관에 전시된 시몬 리의 작품

하이 라인 파크에 전시된 시몬 리의 작품 / 사진 출처 : 하이 라인 파크 홈페이지

공상과학에서 영감을 받아 흑인 여성 육체의 이국화, 성(Gender), 인종, 전쟁, 식민지주의 글로벌 소비주의를 담아왔다. 1972년 나이로비엣 태어난 웨인지키 무투는 1990년대 뉴욕으로 이주해 뉴 스쿨과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인류학과 미술을 전공했다. 쿠퍼 유니온에서 학사, 예일대 대학원에서 조각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계 작가 4인의 활약

이번 휘트니 비엔날레에는 한국계 작가 크리스틴 선 김(Christine Sun Kim). 갈라 포라스 김(Gala Porra Kim), 마이아 루스 리(Maia Ruth Lee) 등 4인이 참가 중이다.

갈라 포라스 김(Gala Porras-Kim)은 고고학적인 방법론과 보존법으로 유물을 복제하고 재가공하여 조각을 만들고 생산한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섞이게 되는 과정을 통해 역사의 문제를 들추는 방식을 사용한다. 라 모아라 스텔라(La Mojarra Stela) 시리즈는 아쿨라 강에서 발굴된 156 CE(2nd century CE)에 메소아메리카 지역의 기념비적인 유물 조각을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이다. 석회암으로 제작된 4t 무게의 평판에 파나마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의 고대 언어, 535개의 상형문자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모티브로 종이, 마호가니, 레진, 금속, 플랙시 글라스, LED, 라이트, 전기 모터 등을 사용해 메소아메리카의 잃어버린 언어를 해독하는 방법을 재조합해냈다.

갈라 포라스 김은 1984년 보고타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콜롬비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때 LA로 이주해 자랐으며 UCLA에서 미술과 남미학을 전공한 후 남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예술대(Cal Arts)에서 다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LA 해머 뮤지엄에서 전시를 한 경력이 있다.

현재 휘트니 비엔날레는 휘트니 뮤지엄의 부 이사장, 워렌 B 캔더스(Warren B Kanders)가 최루탄 회사, 사파리 랜드(Safari land)의 대표이사로 밝혀져 논란을 겪고 있다. 이 회사의 최루탄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이민자들의 진압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루탄을 판 돈으로 부를 축적한 워렌 캔더스는 감세를 위한 기부금을 휘트니 미술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엔날레에 참여한 10명의 작가가 캔더스의 사임 촉구 서명운동과 작품 철회 성명까지 내는 등 휘트니 비엔날레는 진통을 겪고 있다.

휘트니 비엔날레 설치 전경, 갈라포라스 킴(Gala Porras-Kim) <왼쪽부터 라 모아라 스텔라와 그 형태(La Mojarra Stela and its shapes), 라 모아라 스텔라의 네거티브 공간(La Mojarra Stela negative space), 라 모아라 스텔라의 채색된 글자(La Mojarra Stela illuminated text)> 2019